

뉴스홈 | 최신기사

◁월드컵축구▷ 허정무호, 위기탈출 해법 찾을까?(종합)

송고시간 | 2008-10-10 17:52



이근호-신영록 선발 투톱 유력

(서울 파주=연합뉴스) 이영호 배진남 기자 = 승리보다 무승부가 더 많은 허정무호가 '중앙아시아 축구의 자존심'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위기탈출의 대안 찾기에 나선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1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꼴찌(2패)로 밀려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치른다.

GS SHOP
특급 혜택 받으세요!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최종예선 2차전(15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에 대비해 지난 9일부터 소집 훈련을 시작한 터라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은 새 얼굴과 오랜만에 복귀한 자원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4-4-2 전술 실험 통할까?

허정무 감독은 UAE전에 대비해 우즈베키스탄전에 4-4-2 전술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UAE전을 분석한 결과 투톱 스트라이커 기용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박지성의 활용법이다.

허 감독은 그동안 박지성에게 중앙 미드필더와 윙포워드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는 '프리 롤'을 부여하는 소위 박지성 시프트'를 써왔다.

1010회 코도 당상결과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 "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건강하고 소중한 내 아이의 첫 보험
무배당 우체국더든 든한 **자녀자립보험** 우체국 보험



하지만 4-4-2 전술에서 박지성은 측면 미드필더로 좌우 측면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중앙으로 쇄도하거나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허 감독은 10일 오후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실시한 훈련에서 선발 라인업의 윤곽을 드러냈다. 1시간 10분 가량 진행된 이날 훈련 중 20분짜리 미니게임을 한 차례 실시했는데 주전급 팀의 최전방 투톱으로는 올림픽대표팀에서도 호흡을 맞춰왔던 이근호(대구)-신영록(수원)이 나섰다.

최근 K-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정성훈(부산)은 비록 상대팀으로 나섰지만 이날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 허 감독을 마지막까지 고심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박지성은 왼쪽 미드필더로 나섰고 반대편에는 이창용(서울)이 배치됐다.

김남일(بت셀 고베)과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이 빠진 중앙 미드필더는 역시 베이징올림픽에서 짝을 이뤘던 기성용(서울)-김정우(성남) 조로 구성됐다.

포백 라인은 왼쪽에 김동진(제니트)이 서고, 오른쪽 풀백의 임무는 주로 왼쪽에서 뛰었던 베테랑 이영표(도르트문트)에게 맡겨졌다. 강민수(전북)-곽태휘(전남)는 중앙 수비를 맡고 골문은 먼저 정성룡(성남)이 지킬 전망이다.

중앙수비수 중 이정수(수원)는 발가락 부상으로 이날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고, 부상으로 중도 하차한 김진규(서울) 대신 추가 발탁돼 이날 파주에 합류한 김치곤(서울)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날 훈련에서 빠졌다. 이들은 당장 우즈베키스탄전에는 출전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승리가 필요하다

허정무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전을 '육식 가리기'로 규정했다. 선수들을 골고루 뛰게 하면서 UAE전에 나설 베스트 11의 윤곽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최근 부진에 따른 축구 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즈베키스탄전 승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 화끈한 골 사냥이 아니더라도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원한 공격 축구를 펼쳐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허정무호는 데뷔전 패배 이후 11경기 연속 무패행진(5승6무)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답답한 공격력과 함께 유달리 무승부 결과가 강조되면서 위기에 빠져 있어 탈출구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새로운 얼굴이 많고, 4-4-2 전술의 활용을 예고한 터라 유기적인 조직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즈베키스탄전 예상 베스트 11(4-4-2)

| | |
|-----------------|--|
| | |
| | |
| 김동진 박지성 | |
| | |
| | |
| └─ | |
| 정 강민수 김정우 이근호 | |
| | |
| 성 | |
| | |
| 룡 곽태휘 기성용 신영록 |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 | |

| | |

| 이영표 이청용 |

| |

| |

hom90@yna.co.kr

hosu1@yna.co.kr

🔗 관련기사

허정무호 평가전 상대 우즈백, 10일 입국

<월드컵축구> 우즈백 대표팀 입국 '내일이 경기인데'

<월드컵축구> 허정무호, 상대 골문 열기에 총력

<월드컵축구> 허정무호, 위기탈출 해법 찾을까?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0/10 17:52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듯 열풍... 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안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37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60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0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54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39

뭐하고 놀까? #홍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갈채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계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